



굿닥터 첫 번째 이야기 - 갑상선암센터(외과) 이준협 교수

“갑상선암 언제 수술해야 하죠? 전문의 상담 없이 스스로 판단해선 안돼”

20여 년간 환자가 15배나 늘며 그 원인을 두고 갑상선암 조기 검진과 수술 시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늦게 발견하고, 천천히 수술해도 되는 암일까요? 갑상선암센터(외과) 이준협 교수는 “소문이나 인터넷 정보에 근거해 환자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관련 내용 06면



암 치료가 끝난 후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일요일은 세계 암생존자의 날입니다. 치료를 넘어 암을 극복한 암생존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치료받는 암환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기 위한 날입니다. 의학의 발전과 암 조기진단으로 완치되거나 장기 생존하는 암생존자들도 국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는 암생존자들이 암의 치료가 끝난 뒤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 관련 내용 07면



03 이모저모
가천대길병원,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08 의학칼럼
최소침습 심부뇌자극술
파킨슨 환자 '고통 최소화' 기대

09 주목! 이 연구
폐질환자 대상 분석
대기오염물질, 소화기암과 연관

10 가천대소식
가천대학교,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노동자심리 상담 앞장

가천대길병원 이모저모



가천대길병원,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유방암 100점 만점 위암 99.69점 받아
암 치료 및 암 수술 잘하는 병원 인증**

가천대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발표한 제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및 제5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한해 동안 유방암 및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5월 13일 발표했다.

가천대길병원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2019년 한해동안 가천대길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아로마타제 억제제(AI·Aromatase Inhibitor) 투여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8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가천대길병원은 이번 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포함해 7회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발표한 위암 평가 결과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종합점수 99.69점의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

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를 비롯해 앞선 4번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받아 5회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 김양우 가천대길병원장은 “소화기암센터, 여성암센터 등 전문화된 치료시스템과 인천지역 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 사업들을 통해 암환자들이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6년 연속 1등급

세계 사망률 4위... 국내 진단률 매우 낮아

가천대길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적정성 평가에서 6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간 COPD로 외래 치료를 받은 만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COPD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통해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폐기능검사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리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을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가천대길병원은 앞선 5차례의 평가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1등

급을 받아 COPD 환자에 대한 검사, 처방 등에 있어 객관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COPD는 흡연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폐에 염증이 계속되고,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COPD는 전세계 질병 사망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만 6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COPD 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진단률은 3%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박정용 가천대길병원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호흡기내과) 센터장은 “COPD는 상태 호전에 따라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가역적 질환이 아니라 약물, 재활 등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신건강입원영역 적정성 1등급

정신·행동장애 입원 치료 환자 대상 평가

가천대길병원은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병원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입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일수,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을 조사했다. 가천대길병원은 1~5등급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길병원 이모저모

가천대 길병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앤시스코리아 정밀 연구 및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



가천대 길병원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앤시스코리아와 공동으로 보건 의료 분야 연구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5월 25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에서 김양우 병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 앤시스코리아 문석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국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정밀 연구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세 기관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세 기관은 앞으로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공동연구 및 개발 ▲임상 시험 및 연구에 필요한 의학·임상적 정보 공유 ▲교류협력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인력교류 ▲시설·장비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 및 지원 ▲정보 및 출판물의 교류 ▲보건 의료분야의 공동과제 도출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주요 거점 시설들의 감염병 취약성 확인 및 개선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정부 과제에 공동 대응기로 했다.

김양우 병원장은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구축한 두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내 보건 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은 “국가 과학 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코로나 위기 이후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적합한 과학 기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 가천대 길병원에 의료소외계층 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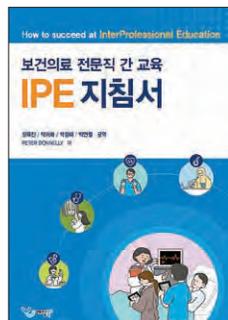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5월 24일 가천대 길병원에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기부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권기동 이사,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유경진 본부장, 신성새마을금고 윤미화 전무 등은 이날 가천대 길병원에서 김양우 병원장, 김우경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장, 서향순 사회사업실장 등과 만나 환자 치료비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치료비는 생체간이식을 앞둔 부부의 이식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지역 상생의 날’

을 맞아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사회사업실로부터 환자를 추천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 새생명돕기회는 1990년 이후 심장병 환자 수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2000년부터는 희귀질환과 이식 환자 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형외과 심재앙 교수팀 대한골절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정형외과 심재앙 교수팀이 5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골절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심 교수는 ‘근위 경골 절골술시 적절한 정렬을 위해 관절면의 수렴각을 고려해야 한다 (Change of joint-line convergence angle should be considered for accurate alignment correction in high tibial osteotomy)’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골관절염의 치료 중 하나인 근위 경골 절골술을 좀더 정확하게 수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다. 심 교수는 무릎 관절 분야 명의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심사위원,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위원,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진료 및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에는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 보건 의료 전문직 간 교육(IPE) 지침서 번역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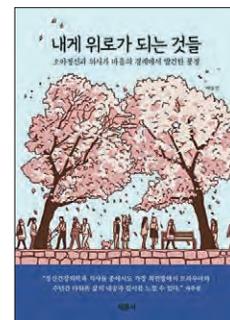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가천대 의학교육학과 박귀화 교수 등과 함께 『보건 의료 전문직 간 교육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지침서를 번역 출간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전 세계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를 보는 시각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료팀-환자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료 직종간 협력과 소통은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학적 오류를 감소시키며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IP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질 향상(QI)팀,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다학제팀, 병동 회진팀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대표역자를 맡은 정욱진 교수는 “이 책은 IPE를 처음 접하는 보건 의료분야 교수와 학습자, IPE 개발 책임자 등에게 좋은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을 통해 보건 의료 현장에서 IPE의 궁극적 성과인 의료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양내과 박주환 교수 공동 제1저자 참여 백혈병 항암 화학요법 치료제 메커니즘 규명

종양내과 박주환 교수가 공동제1저자로 참여한 ‘백혈병 항암 화학 치료제 ‘데시타빈’의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NAS) 3월 30일자에 실렸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 화학항암제 중 하나인 ‘데시타빈’의 인체 내 작용 기전을 밝히고 항암제 효과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유전자 발굴에 성공했다. 박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이중나선RNA(dsRNA)와 직접 결합하는 스타우펜1(StauFen1) 유전자가 데시타빈의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암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박 교수가 서울대병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진행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식 교수 등 연구팀과 함께 연구한 결과다.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20년 진료 경험 담은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 출간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가 소아 정신과 전문의로서 지난 20년 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느낀 점을 엮은 에세이집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채륜서)을 최근 발간했다. 배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며, 법무부 위탁 인천 스마일센터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총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는 배 교수가 의사와 엄마로서 살아오며 느껴왔던 일상들이 담겨있다.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실타래처럼 얽힌 한 가정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따뜻하고 쉽게 풀어내 읽은 이를 배려하고 있다. 배 교수는 “그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면서 깨달은 단상들을 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배 교수는 2018년 한미수필문학상, 2020년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내 아이가 보내는 SOS』를 저술한 바 있다. 또 트라우마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책 『게임기반 인지행동치료』와 애도를 다루는 책인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에 역자로 참여했다.

미디어 들여다보기

KBS 1TV 「다큐온」 외과 이원석 교수 출연

KBS 1TV 「다큐온」 5월 7일(금) 방송에 외과 이원석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위암과 간암 그리고 대장암 등 3개의 다발성 원발성 악성종양을 극복한 환자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 교수는 “현재 환자분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처음 암을 발견한 이후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TBC 「뉴스」 외상외과 정태석 교수 출연

JTBC 「뉴스」 5월 10일(월) 방송에 외상외과 정태석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아동 학대로 인해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뇌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여아의 사례에 대한 보도로 정 교수는 당시 긴박했던 치료현장과 외상성 뇌출혈 치료경과 등 환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전했다.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당뇨병내분비센터 박이병 교수 출연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5월 17일(월) 방송에 당뇨병내분비센터 박이병 교수가 출연했다. 시사교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하는 이날 방송의 주제는 ‘건강의 적! 당뇨’로 박 교수는 당뇨의 개념과 원인, 증상은 물론, 당뇨예방을 위한 식습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형외과 심재앙 교수 출연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월 20일(목) 방송에 정형외과 심재앙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목, 손목, 발목 건강법을 주제로 스튜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심 교수는 부위별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과 일상생활 속 관절건강을 지키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YTN 라디오 「마음주치의」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 출연

YTN 라디오(FM 94.5) 「마음주치의」 5월 24일(월) 방송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가 출연했다. 이



날 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자녀의 마음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배 교수는 오프라인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환경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MBC 「100분 토론」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출연

TV조선 「100분 토론」 5월 25일(화) 방송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백신 공포의 실체’를 주제로 스튜디오 대담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엄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이상반응,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 저조 현상 등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TBN 경인교통방송 라디오 「경인매거진」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출연

TBN 경인교통방송 「경인매거진」 5월 28일(금) 방송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전했으며 강 교수는 대교에서의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사업 등을 소개했다.



외상외과 이길재 교수

경기일보 「코로나 장기화로 헌혈 찬바람」 기사에 조언

외상외과 이길재 교수는 5월 3일자 경기일보에 실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비상’을 주제로 한 기사에 조언했다. 이 교수는 “외상 환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혈액팩 몇 십개가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는 수술은 미루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양을 조절하면서 위험을 안고 수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엔 의료진들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헌혈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영양실 허정연 실장

중앙일보 「과일 씨앗의 건강학」 기사에 도움말

영양실 허정연 실장은 중앙일보 5월 3일자 지면에 실린 ‘혈액순환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씨앗’을 주제로 한 기사에 조언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과일의 씨앗에 의외로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소개하며 수박씨, 포도씨, 석류씨, 참외씨 등의 효능과 활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소화기내과(헬스IT연구센터장) 박동균 교수

국민일보 인터뷰 게재

소화기내과(헬스IT연구센터장) 박동균 교수의 인터뷰가 5월 17일자 국민일보에 게재됐다. 박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장내시경 진단 시스템인 ‘닥터앤서’와 관련해 인터뷰했다. 박 교수는 “닥터앤서를 활용하면 더욱 꼼꼼하게 대장 용종을 진단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대장암 위험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인 병원이 더 높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 정한 교수

한국일보 「중년 여성에 많은 간질성 방광염 관리」 기사에 조언

비뇨의학과 정한 교수는 5월 18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중년 여성에 많은 간질성방광염,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제의 기사에 조언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1,200만명이 간질성방광염으로 힘들어하지만 상당수가 수년간 방치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진해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간질성방광염은 ‘고혈압,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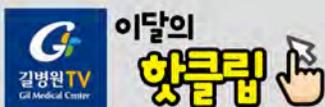


피부과 김희주 교수

서울경제 「여름철 피부 건강」 기사에 조언

피부과 김희주 교수는 5월 26일자 서울경제에 실린 ‘동안 피부의 불청객... 자외선을 막아라’ 기사에 조언했다. 김 교수는 “자외선은 완전히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자외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외선 양이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무릎 관절염! 연골상태와 통증에 따라 치료

모든 질환이 삶의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히, 무릎 관절염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 오기에 삶의 질 저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BS 명의 프로그램 344회 '무릎관절염'편 출연으로 잘 알려진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이범구 교수는 환자의 연골상태와 통증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로 무릎통증을 관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어떤 치료든 좋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내 무릎에 통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비밀: 권역외상센터 소생실!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불행히 마주하게 되는 중증외상환자!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진 준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201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만을 위해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권역외상센터 소생실을 소개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공간, 소생실을 외상외과 이민아 교수의 설명으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유튜브에서 길병원TV를 검색하세요



사회적 관심 반영한, 생생 건강정보로 취향 저격!

조기진단법 없는 사망 1위 췌장암! 일찍 발견하려면?

(소화기내과 김연석 교수)

사망 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특히 2018년 국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지난 10년간 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췌장암의 완치를 의미하는 5년 생존율은 12.6%에 그칩니다. 췌장암 환자 100명 중 약 13명 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행히 췌장암을 1~2기인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받은 환자들은 생존율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3기 이상에서 발견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췌장암의 특징과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얼굴·손·발 변화 사망 위험 높이는 말단비대증

(당뇨내분비센터 김병준 교수)

얼굴이나 손 발이 비대해지는 희귀난치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호르몬 문제로 생기는 '말단비대증'입니다. 다양한 증상이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돼서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말단비대증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심장비대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돼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이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말단비대증의 원인과 특징, 증상을 개선하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천대 길병원

네이버 검색창에 '가천대 길병원' 검색, 오른쪽 상단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굿닥터

갑상선암센터 외과
이준협 교수

“느리고 착한 암” 이라고 치료시기 놓치면 안돼 전문의 상담 꼭 거쳐야”



예후 좋지 않은 환자 늘고 있어
변화하는 ‘여성호르몬’ 영향 커
폐경 맞은 40대 이상 여성 주의
갑상선암 환우 모임 활성화되길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이다. 갑상선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 암 발생이 줄었다기보다, 갑상선암의 진단과 수술에 대한 과잉 논란이 학계 안팎에서 제기되며 적절한 진단 시기와 수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상선이 가진 ‘느리고 착한 암’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우려한다. ‘굿닥터’ 이준협 교수를 통해 그가 주목하고 있는 갑상선암의 최근 동향과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

갑상선암 수술, 조금 천천히 해도 될까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갑상선암 검진이 과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과하고, 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적절한’ 지점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일에 정반합이 있듯이 올바른 길로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걱정은 과잉 검진과 수술 논란 이후에 암의 진행 단계에서 볼 때 안좋은 상태, 혹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 등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 환자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전문의와 상담을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수술을 언제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종합적인 컨디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0대 이상, 여성에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다만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영향이다. 이 호르몬이 여성들이 40대 이상 폐경을 맞이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발생 확률이 높다. 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에서의 갑상선암은 여성에 비해 진행, 예후 등 면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재발될까 너무 걱정입니다.

환자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 갑상선암은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재발도 느리다. 10년, 15년 후에 재발되는 환자도 있다. 많은 환자들이 마음 한구석에 재발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는데, 의사로서도 한 환자를 5년, 10년, 20년, 30년동안 일정한 주기로 만나다보면 그 분들의 질환만이 아닌 사람대 사람으로서의 고민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혼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조직이 잘 돼 있는 유방암 환우회와 같이 갑상선암 환우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갑상선암 환자 미역 먹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미역국을 드시고, 김밥을 드시는 정도는 괜찮다. 일상생활에서 삼시세끼 미역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섭취한 요오드가 모두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최근 연구 동향 및 관심사항은.

요오드 농도에 따라 갑상선 관련 유전자에 변화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근거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 갑상선암 수술 중 부갑상선의 위치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미리 발견해 부갑상선이 다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암을 총칭해 갑상선암이라고 한다. 갑상선은 숨 쉴 때 공기의 통로가 되는 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이다.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및 저장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보내는 기능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성장, 발육, 소화, 체온 조절 등 우리 몸의 각종 대사작용을 통해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의 기원이 되는 세포와 분화 정도 등에 따라 갑상선유두암, 갑상선여포암, 갑상선수질암, 갑상선미분화암, 역형성암, 전이성 갑상선암 등으로 구분한다.



● 이준협 교수

진료분야
갑상선암, 양성 갑상선 질환,
내시경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부신질환

약력
서울대 의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명민학술상 우수연재상
대한복강경내시경외과학회 최우수 구연상

“ 암 넘어 새로운 일상으로 ”

“암 치료가 끝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암생존자 여러분 곁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있습니다

암생존자의 날은 1988년 6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현재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 많은 나라의 도시에서 매년 암생존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암생존자는 암을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암 진단 후 일차 치료를 통해 암이 치료된 사람 뿐 아니라 현재 암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환자, 완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 암생존자 2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2019년, 첫 번째 암생존자 주간 행사를 기획하는 등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암생존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해나갈 길 옹호하며, 암생존자를 축하하기 위해 암생존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생존자들과 가까이에서 암치료가 끝난 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Interview | 박흥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

1. 암생존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서 말하는 암 생존자란 암 진단 후 완치목적인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주요 치료를 마친 암환자를 말합니다. 주요 치료를 마쳤지만 암 재발 방지와 사회적으로 일상의 복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 모두 암생존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차적인 주요 암치료를 마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암환자들 개개인의 개별평가 및 상담을 통해 암생존자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심리적 회복력을 증진하여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수면위생교육, 영양·식생활교육, 운동교육, 심리지지 상담교육, 직업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가족, 보호자 등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암에 걸린 것을 자책하거나 배우자나 자식들,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를 하는 동안 암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따뜻한 말이나 배려가 환자들에게는 그 어떤 치료보다, 암을 이겨 낼 수 있는 큰 힘과 약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치료 후에도 암환

자들의 마음속에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위 분들의 무관심, 무심히 하는 말 한마디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이 시기에 특히 우울증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분들의 배려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암 생존자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회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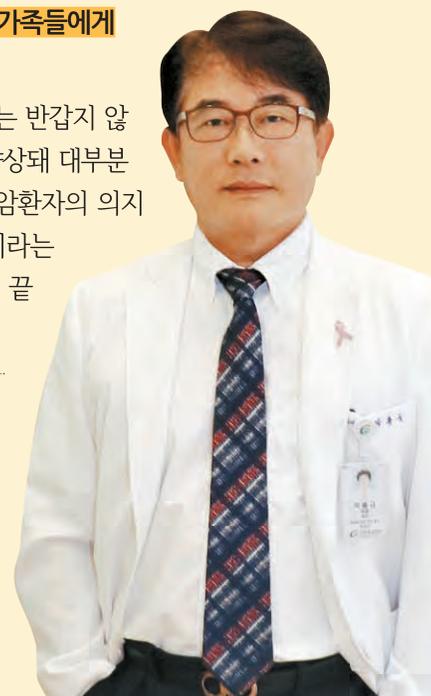
4. 암 진단과 치료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은 다른 질병처럼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일 뿐입니다. 의학 기술이 크게 향상돼 대부분의 암은 완치 또는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의지와 가족분들의 배려는 암 치료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선입니다.

박흥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

진료분야
유방클리닉(유방암 및 유방종양 검사 및 수술)

약력
- 가천대 길병원 여성암센터장 및 유방암센터장
- 2017년 암예방의 날 국가근정포장
-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



2021 암생존자 주간 맞이 SNS 캠페인(5.3~5.14) 우수작



SNS 문장 완성하기

내 삶에 있어 암은 _____ 이다
나에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_____ 이다
나는 암생존자가 _____ 한 사회를 꿈꾼다

감*옥님
나에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가장 가까이 하고픈 친구다**

감*오님
나는 암생존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윤*희님
내 삶에 있어 암은 **나를 돌보게 만든 심터**이다

이*리님
내 삶에 있어 암은 **속을 알 수 없는 친구**다

암생존자와 어울리는 동물을 찾아줘

암생존자들이 생각하는 암생존자와 어울리는 동물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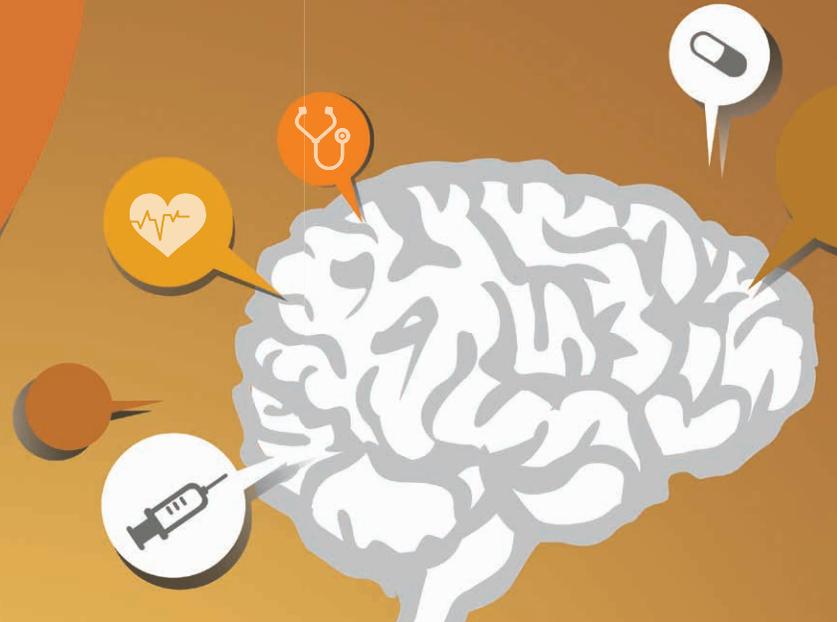
감*길님
낙타 (일어날 때 다리를 한번만 펴는 사람과 달리 낙타는 무릎을 먼저 펴고 발목을 펴요. 처음 일어날 때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엔 일어나서 곳곳이 걷는 모습이 암생존자를 닮았어요)

이*용님
타조 (타조는 새이지만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튼튼한 다리로 무려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타조처럼 하지 못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암생존자를 닮은 것 같아요)

의학칼럼

전신마취하 최소침습 심부뇌자극술
국내 두 번째 시행

파킨슨 환자 '고통 최소화' 기대



7년 전 파킨슨병 발병 후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던 올해 71세 남성인 김씨. 김씨는 왼손의 떨림으로 시작된 파킨슨병이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급기야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고, 이상운동증이 발생해 왼쪽 팔은 잘 쓰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김 씨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했지만, 부분마취 후 뇌에 직접 전극선을 넣어 이뤄지는 수술방법이 두려워 선택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는 가천대 길병원이 전신마취 하 최소침습 심부뇌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DBS)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전신마취 상태에서 두피에 한 번의 절개만으로 수술이 이뤄져 고통이 획기적으로 줄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받은 김씨는 수술과정과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수술 일정을 잡아 전신마취 후 최소침습 심부뇌자극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두 번째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인 심부뇌자극술을 시행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킨슨병 치료시 심부뇌자극술은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상운동증 등으로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며 유일한 외과적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과거 심부뇌자극술은 전극선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부분마취만 적용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술 시 환자는 머리뼈 깊이 고정된 무거운 틀을 박고, 이후 두피에 5~6개의 구멍이 뚫린 채 뇌에 전극선이 심어지는 1~2시간의 과정을 의식이 있는 채로 겪게 됩니다. 이때 극심한 정서적, 신체적 고통이 동반됩니다. 또 이 긴 시간 동안 환자는 딱딱하고 좁은 수술침대에서 움직임 없이 고정된 채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분마취가 이뤄지는 이유는 파킨슨병에 의해 문제가 되는 뇌 부분을 정확하게 찾고, 전극선에 의한 효과와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의료진이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환자는 수술 과정 중에도 손을 들어서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과거 한쪽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반대쪽 수술을 거부할 정도로 환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컸었습니다. 이에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신마취 후 최소침습 심부뇌자극술이 개발됐습니다.

전신마취 상태에서 최소 절개 시행 기존의 부분마취 수술방법보다 '신체·정서적 고통' 획기적 감소 효과는 동일... 환자 친화적 수술법

"파킨슨병 환자는 수술 전 모든 파킨슨 약을 중단한 채로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환자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수술 중 받게 되는 고통은 큰데, 거기에 더해 부분마취 수술은 환자에게 매우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남깁니다. 전신마취 하의 최소침습 심부뇌자극술은 환자 친화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환자의 마취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BIS(Bispectral Index)'와 특별한 마취방법인 'TIVA(Total intravenous anesthesia)'입니다. 그래야 전신마취 후 표적이 되는 뇌의 신경핵을 자극했을 때 신경활성도를 측정하는 '미세전극기록(Micro-electrode

recording, MER)'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전극기록을 측정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정맥주사로 투여되는 마취약을 줄여 환자의 마취상태를 풀고 재우듯이 각성시켜 신경활성도를 정상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마취가 아니어도 원하는 표적의 효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 후 심부뇌자극술은 부분마취 심부뇌자극술과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004년 프랑스 연구에서 부분마취 환자 15명과 전신마취 환자 15명을 비교한 결과,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07년 일본에서 전신마취 환자 15명의 수술 결과가 기존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신마취 후 심부뇌자극술은 파킨슨병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두피를 최소침습적으로 절개해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신마취 심부뇌자극술에 최소침습 수술방법을 결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은 머리 양쪽 두피에 총 5~6번의 절개가 이뤄지며 지름 약 20cm 정도의 흉터를 남깁니다. 하지만, 최소침습적 방법은 약 7cm 남짓의 작은 절개 하나만 남깁니다. 수술 전 정확히 확인된 표적에 1개의 전극선만 사용해 최대한 정밀하게 넣는 노력이 이뤄져 가능합니다. 기존 수술은 전극선 5개가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감염률을 낮추고, 출혈의 위험성을 줄여 환자의 통증을 크게 감소 시킵니다.



신경외과
박광우 교수

진료분야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병, 진전증(떨림증), 뇌전증, 뇌종양

- 약력**
- 신경외과 전문의 취득(2008)
 -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취득(2016)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2017~2018)
 -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2018~2019)
 -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2008~2019)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정회원(2016~2019)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회원(2017~2019)

특집

'주목! 이 연구'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연구 활발

가천대 길병원 교수팀, 호흡기 질환에 영향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분석

호흡기내과 정성환 교수팀, '환경성 폐질환 독성 예측 플랫폼' 개발



정성환 교수

박정웅 교수

경선영 교수

손국희 교수

에어로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유해인자별 '바이오마커' 개발

국내 연구진이 가슴기 살균제와 같은 에어로졸(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 형태의 미립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체 호흡기와 동일한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유해인자별 독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게 된다.

호흡기내과 정성환, 박정웅, 경선영 교수팀과 흉부외과 손국희 교수, 가천대학교 이진우 교수팀은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환경성 폐질환 독성 예

측 플랫폼 개발'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에어로졸 형태의 다양한 보존제, 살균제, 방부제 같은 살생물제를 비롯한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실내외 대기오염물질의 독성을 신속히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에어로졸 형태의 환경오염물질의 인체 독성을 예측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하며 다양한 환경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질환 발생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인체 호흡기(인후, 기관, 기관지, 폐)를 실제 조직과 유사하고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3D 호흡기 모델 제작은 손국희, 이진우 교수의 협동 연구로 진행된다. 이렇게 구축된 3D 호흡기 모델에 국내 실내외 대기환경을 고려한 에어로졸 형태의 환경유해인자를 노출시킨다. 이후 각 환경유해인자가 인체 호흡기에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질병을 일으키는지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에어로졸의 세포노출기술을 확립하고, 각각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결국, 호흡기 독성 예측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환경성 폐질환 독성 예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성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호흡기질환 예방과 환경성 폐질환 발병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이완형 교수, 폐질환자 대상 분석

대기오염물질이 '소화기암' 과도 연관 호흡 인한 오염물질 삼킴 등 원인으로 추정

직업환경의학과 이완형 교수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에어로졸(대기 부유물질)이 호흡기뿐 아니라 소화기암도 유발하는 원인임을 밝혀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돼 주목 받았다.

이완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외부물질로 인한 폐질환' 치료 차 병원에 입원한 남성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소화기암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는 모두 일반 남성 노동자로 구성됐으며 유해물질 에어로졸에 노출된 A그룹(98,666인년)과 노출되지 않은 B그룹(79,959,286인년)을 비교분석해 이뤄졌다. 특히 A그룹 대상자들의 특징으로는 고체 및 액체 물질로 인한 폐렴 환자가 전체 2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또 화학물질과 기체, 훈증기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자는 23.1%, 상세불명의 진폐증 환자는 12.6%에 달했



다. 또 A그룹 중 흡연자 비율은 B그룹에 비해 높았다.

연구 결과, 모든 소화기암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에어로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화기암 유병률은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오즈비가 1.30(1.19-1.38)으로 나타나 약 30% 높았다. 암 종별로는 구강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3.96배(오즈비 3.96(3.02-4.78))나 높았고, 그 뒤로 식도암이 3.47배(오즈비 3.47(2.60-4.25))로 높았다. 위암은 1.34배(오즈비 1.34(1.17-1.47))로 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에어로졸이 주로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에 소화기관 같은 인체의 다른 부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이 에어로졸이 소화기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코 및 입을 통해 호흡 시 에어로졸 흡입 ▲식도 주변의 괄약근 긴장도 감소 ▲음식, 피부, 옷 등이 에어로졸에 의해 오염됨 ▲호흡기관과 소화기관의 연결성 등으로 추정됐다.

이완형 교수는 "아직 외부 에어로졸 발암 물질이 소화기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최근 외부 에어로졸 발암 물질이 소화기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호흡기뿐 아니라 소화기에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에어로졸과 소화기암의 인관관계를 밝혔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External Airborne-agent Exposure Increase Risk of Digestive Tract Cancer'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IF 3.998로 2020년 게재돼 주목을 받았다.

*인년: 대상자의 관찰기간이 모두 다를 때 사용한다. 통상 1인 1년간의 관찰을 1인년의 단위로 한다.

가천대학교 소식

가천대학교 위탁 운영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노동자 심리 상담 앞장

노동안전 사각지대 대상 무료 심리교육 및 검사, 사후관리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김희걸 교수, 부센터장 김지윤 교수)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근로자의 심리 상담에 앞장서고 있다. 가천대는 지난해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산업보건 사업을 펼쳐 근로자건강센터 활동운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기관으로 지난 3월 선정됐다.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일터에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심리교육 및 검사, 상담과 사후관리를 한다.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는 산업재해 현장을 비롯해 센터를 찾아오기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이동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트라우마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4월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고, 최근 관외 지역인 평택지역 중대재해 현장 등을 찾아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했으며 의정부, 남양주 등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현장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김희걸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장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근로자

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사각지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상의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에 힘 보태고 싶다”

도부라이프텍(주), 가천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원 기부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4일 가천관에서 열린 개교 82주년 기념식에서 보건·산업마스크 제조업체 도부라이프텍(주)(회장 김일순)로부터 대학발전기금 2억원을 받았다. 김일순 회장은 “가천대가 의대를 비롯해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는데 힘을 보태고 코로나19에도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첨단 산업·보건용 보호구 연구 개발과 다양한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천대는 이번 기부금을 산업·보건용 보호구 연구 개발과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 전공 학생들의 장

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길여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발전기금을 쾌척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가천대도 4차산업혁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김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부라이프텍(주)는 김회장이 1970년대 광산에 기초적인 방진장비도 하나 없던 시절 먼지가 자욱한 탄광의 막장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을 보며 호흡용 보호구 개발을 시작으로 설립하였으며 산업용 보호구, 황사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 국내 동종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진로·취업 A to Z 릴레이 특강 진행

10가지 주제별 연속 특강으로 지역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진로·취업 A to Z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은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여름방학기간 등을 고려해 1차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했고, 2차로 8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열린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진행되며 가천대 재학생 및 지역 청년 등이 참여했다. 특강은 일자리 변화에 따른 경력개발 이해, MZ세대의 사회 및 조직 적응력 향상, 커리어 목표설정과 생애로드맵 설계 등을 목표로 10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세부 주제는 △자기이해 △언택트 네트워킹 △직무별 취업전략 △경력쌓기 전략 △직장 커뮤니케이션 △재무설계 방법 △결혼과 자립 △MZ세대 경력개발 △취업스트레스 관리법 △리더십의 이해 등이다.



지난 5월 11일 특강에 참여한 박재진 학생(여·20·심리학과2)은 “특강을 통해 자기 이해방법을 배우고 나의 적성과 진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다”며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무를 찾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취업진로처장)은 “이번 특강은 취업 준비 방법과 전략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조직생활과 인생 설계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MZ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돼 최대 5년간 30억원을 지원받아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이 당신을 칭찬 합니다

고객의 소리

고객 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우리병원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동과 친절을 선물한 우리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수많은 감동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객의 소리>는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외상외과 조자윤 교수

외상외과 조자윤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조자윤 교수님은 우리 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들에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긴 치료 과정에서 끊임 없이 환자 가족에게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니 칭찬합니다. 박○○



이비인후과 한규철 교수

매번 섬세하고 친절하게 치료해 주셔서 항상 믿음을 갖고 마음 편하게 병원에 올 수 있습니다. 몇 년을 한 교수님과 간호사님들께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환자로써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웃으면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도 여건도 더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면 안되지만) 교수님과 간호사님들 오래 뵙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한규철 교수님과 김미정 수간호사님, 문상희 간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



갑상선암센터 정유승 교수

정유승 교수님을 비롯해 인공지능 암센터 11층 모든 의료진들께서 친절하게 저희 엄마를 잘 케어해 주셨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퇴원하지 못하고 더 오래 계시게 되었는데, 의료진분들의 정성스런 보살핌과 응원 덕에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유승 교수님의 세심한 치료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정명윤 선생님과 송민지 간호사님, 보호자로서 지켜봐 줄 때 자기의 가족을 보살피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저희 엄마의 회복을 도와주셔서 큰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김○○



재활의학과 이주강 교수

심한 통증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주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같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현재의 상태를 설명해주시고 걱정을 없애주셔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미소로 대해주시고, 재활운동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어서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



혈액내과 유쾌한 교수

아버지의 백혈병 진단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병원을 선택하고 치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유쾌한 교수님을 믿고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한 결정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환자를 대하시는 모습에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원 치료 받는 동안 불편함 없이 견디실 수 있도록 해주신 유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손○○



소아청소년과 조혜경 교수

병원에 입원하게 돼 불안하고 떨렸는데 조혜경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친절히 봐주시고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고 갑니다. 또한 이명연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 아이 친절히 봐주셔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님 또한, 아이가 주사를 무서워 하는데 한번에 잘 빼주시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입원하는 동안 집처럼 편하게 쉬다 갑니다. 이예은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아이 투정도 잘 받아주시고 링거도 잘 놓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의료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 고객의 칭찬

진료부 ○비뇨의학과 정한 ○산부인과 김석영, 신귀택(전공의), 임소이, 전승주, 정다희 ○성형외과 김선웅(전공의), 문해광(전공의), 배우식 ○소아청소년과 류일, 선운한, 이명연(전공의), 조혜경, 차한 ○소화기내과 김주현 ○심장내과 강웅철 ○외과 박흥규, 정명윤(전공의), 정유승 외상외과 김민준, 김우석, 윤용철, 이도연(전공의), 정태석, 조자윤 ○이비인후과 김지수(전공의), 선우웅상, 우주현, 차흥익, 한규철 ○재활의학과 이주강 정형외과 심재앙, 조성해(전공의) ○종양내과 조은경 ○혈액내과 김혁, 김형선(전담간호사), 유쾌한 ○호흡기내과 박정웅, 엄민영(전공의), 정성환 ○흉부외과 박철현

간호본부 ○A108W A108병동, 고혜원, 국보라, 김현승, 김희경, 박민경, 박주훈, 신효정, 이현혜 ○A128W A128병동, 길수정, 김정훈(이승팀), 김정훈(이승팀) ○A148W 노윤희 ○A158W 김진주(여사), 박정하 ○A168W A168병동, 민다윤 ○A88W A88병동, 송유진, 유정민 ○A98W A98병동, 김민서, 박정현, 백민주, 선정은, 이미림, 이미희, 이수정, 장은영, 조용설 ○C10AW 김미숙, 이혜연 ○C10BW C10B병동, 고석희, 박수진, 이윤정 ○C7AW 강은주 ○C9AW 구인숙, 심경선, 정혜인, 홍은영 ○C9BW 김윤영, 유미숙 ○CT주사실 양문숙, 윤유경, 한은수 ○I106W I106병동, 오은진, 이혁, 정민혁 ○I116W I116병동, 송민지, 안명희, 유한새 ○I126W I126병동, 이지현 ○I136W I136병동, 이예린, 이윤정, 이지수, 최수열, 황우리 ○I146W 김희선 ○I156W I156병동, 김기래, 이혜영 ○I96W I96병동, 김이슬, 김현정, 성지현, 이효민, 황지선 ○M6W M6층병동, 김진아 ○M7W M7층병동, 금효인, 김청숙, 박민영, 박소영, 박은선, 윤미진, 이예은 ○MDR 고위험 산모집중치료실, 분만실 ○R10W R10층병동, 김민기, 박진희(석고실), 이보영, 전성애, 조우리 ○R7W R7층병동 ○R8W R8층병동 ○R9W R9층병동, 심진경, 유승희, 이상록 ○가정의학과 외래 문연화 ○마취과 김홍연 ○산부인과 외래 윤영 ○성형외과 외래 박현주 ○수술팀 조희재 ○신경과 외래 신경과 외래 ○심장내과 외래 박성희, 양희진 ○이비인후과 외래 김미정, 문상희 ○인공신장실 김민희, 김아름, 박은희, 박지훈, 송현주, 이은주 ○인공신장실 임주희 ○재활의학과 외래 박동혜, 재활의학과 외래, 황솔 ○종양내과 외래 김혜영, 이수진 ○통원치료센터 통원치료센터 ○호흡기내과 외래 진새은

진료지원부 ○VIP검진센터 VIP검진센터, 신봉자, 양지은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팀 황혁순 ○방사선종양학팀 강명화 ○방사선종양학팀 유규화 ○VIP/신환상담팀 권보경, 김기은
행정부 ○고객상담실 권오숙, 서정아 ○영양팀 영양팀, 이성숙 ○재난방재팀 강규래, 김명순

병원이용 꿀팁 / 마음으로 프로젝트

기부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경험자 우울 극복을 위한

인천시 마음으로 프로젝트

가천대 길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에서 코로나 우울극복을 위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하나 **코로나 완치자 우울극복 수기 공모**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 공모 내용 : 격리와 치료 기간 중 우울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연, 코로나를 직접 경험하며 느낀점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 접수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imhc.or.kr>) 밴드 '마로아띠', 이메일(menta2021@naver.com)
- 기간 : 2021년 6월 7일~7월 6일
- 문의 : 032-468-9916(공모방법 및 시상내역 등 홈페이지 또는 밴드 참조)

둘 **코로나 경험자(완치/자가격리) 마음건강 check! 면역력 up!**

- 내용 : 마음건강검진(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 심리지원서비스 요구도 조사
- 방법 : QR코드 스캔 후 링크접속, 검진 및 설문 문항 응답
- 기간 : 2021년 6월 7일~7월 6일 (참여자 모두에게 음료쿠폰 제공)
- 문의 : 032-468-9931

※ 검진결과에 따라 종합심리검사,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정00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오랫동안 앓아왔습니다. 생계급여 50만원으로 한달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 검사가 필요했지만 당장 검사비가 없어 검사를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급한 마음에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0만원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형편인 탓에 치료를 포기하려 했지만 통증이 날로 심해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천대 길병원 사회사업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00님의 사례를 상담한 사회사업팀은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정성으로 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00님은 무사히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00님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또 "건강이 좋아진다면 빠듯한 살림이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담을 돕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정00님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후원자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 또한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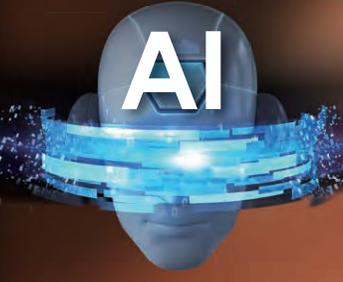
후원계좌번호 100-014-147300(신한은행, 예금주: 길의료재단)
※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요 시 사회사업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대장내시경 예측/진단 시스템 닥터앤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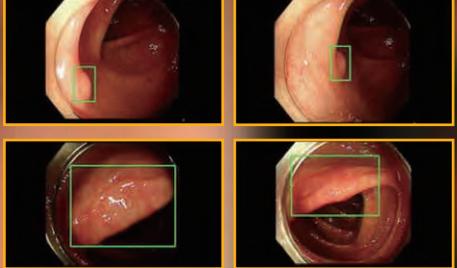
내시경 영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 용종을 자동으로 찾아줘 작은 용종도 지나치지 않고 검출해 내시경 정확도를 높이고 의학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장내시경 영상



닥터앤서 AI



대장 용종 발견 및 경고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한 길, 행복한 길**에 가천대 길병원이 **동행**하겠습니다

※ 진료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척추센터, 통증센터, 대장항문클리닉, 성형외과, 소화기센터, 외과, 피부과, 혈관외과, 폐센터(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당뇨내분비센터, 류마티스내과, 신장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갑상선클리닉,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유방클리닉, 혈액내과, 중앙내과, 심신클리닉, 심장내과, 소아심장과, 흉부외과, 웰니스클리닉, 대사비만센터,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직업환경의학과

1577-2299
www.gilhospital.com